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Vol. 26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Vol. 26

Cover story

(사)고성오광대보존회 '광대 나가신다'

(사)고성오광대보존회는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탈춤 고성오광대를 지켜가는 전승단체다. 조선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오광대는 우리 지역의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전통문화이자 문화강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에서 작곡가 김지만의 고성오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광대 나가신다' 에 맞추어 고성오광대가 신명나는 춤판을 벌이는 모습이다.

발행인 황윤철
발행일 2019. 1. 3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055. 285. 5611
편집인 강신철
진 행 손수나
기획·디자인 디자인바오

Contents

스페셜 칼럼 02 지역문화 활성화와 메세나

아름다운 동행 06 음악으로 가슴 뜨거운 사람들
경남프리모앙상블 & 경남프리마양상블 X 청아의료재단
10 김해에서 피어난 동백꽃 한 송이
김해가야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with 디엠솔리스트앙상블, 따소미문화예술단,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

메세나 인터뷰 14 경남미술청년작가회 김상효 회장
18 STARS ON STAGE
첼리스트 문태국 & 크레디아 스타쉽 이강원 이사

포토포엠 22 사천 실안낙조 by 이상헌작가

문화공간 24 사천 카페 정미소
26 지리산 청강원

회원사 소식 30 범한산업 _ 빌딩 숲에 꽃 물들이다

메세나 뉴스 32 2018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34 2018 경남메세나대회
40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메세나 스페셜 42 낯선 낯익음 '광대 나가신다'에 거는 기대

인조이 컬처 44 문화도시 _ 평양
46 시인 허수경, 당신을 부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메세나 MECENAT

최근 국내외적으로 '성장' 과 관련하여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등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현 한국 사회와 지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 그리고 문화라는 이슈들을 *지역사회 발전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병 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건국대 SSK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장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문화관광 분야 자문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문화산업학회 학술이사

해야 할 일, 메세나.

경제와 산업, 문화의 관계는 일견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최근 문화의 다양한 효과성이 강조되고,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지역에서도 메세나 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참여, 포용성장, 문화향유 등의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지금까지 문화적 이미지 제고 등 간접효과 창출을 위해 문화를 수단으로서 활용해 왔지만 이제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메세나 활동을 '하면 좋은 일'에서 '해야 할 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업 이미지 제고, 근로의욕 고취, 애사심 형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학에서도 마켓 4.0이라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업 경영 법칙들이 공동 창조(Co-creation), 통화(Currency), 공동체 활성화(Communal activation), 대화(Conversation)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에 근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문화지구,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을 지정하는 등 많은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 문화영향평가 등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책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메세나는 지역과 기업의 상호성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요소.

지역문화와 메세나의 활동은 새로운 시대 기업 성장의 혁신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이라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자원 이외에 혁신적인 문화자산과 예술 활동을 새롭게 투입하여 기업의 역할을 매개로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메세나 활동은 지역과 기업의 상호 성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 요소라고 인식할 수 있다.

실제, 메세나는 지역기업과 예술가의 만남, 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매칭 펀드 조성,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메세나 이외에도 Arts for Children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이 문화매개자로서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화 강국인 영국에서는 기업이 예술을 지원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예술지원금도 대부분 지역사회의 범주 내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영국 플리머스 창의학교
Plymouth Creative Art School, PCAS

플리머스 창의학교(Plymouth Creative Art School, PCAS)는 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학교다.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수요가 학교 운영에 충분히 반영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학교 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축제, 자선바자회,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운영 기금을 조성하는데 특히 플리머스 지역의 기업과 유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메세나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을 중시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들은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동반성장의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문화예술과 사회공헌분야(복지, 의료, 교육, 환경 등)를 관통하는 복합적 메세나를 활성화하고 있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발전 등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구체적으로는 후원, 협찬, 기부, 출연, 모금, 장학, 교육 프로그램 운용, 재단 설립, 공익광고, 예술인 채용, 작품 구입, 문화마케팅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일본 아사히 맥주회사의
'Community and Cultural Activities Asahi' 네트워크 회의

아사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교육, 그리고 지역 재생 프로그램인 '강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 커뮤니티'라는 키워드로 한데 묶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사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게는 사회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메세나

기업들은 지금까지 문화적 이미지 제고 등 간접효과 창출을 위해 문화를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이제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메세나 활동을 '하면 좋은 일'에서 '해야 할 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역발전과 관련된 기업의 예술 후원은 향후 미래 기업 마케팅에서도 가장 급성장할 부문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기업 후원의 경우, 예술가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수혜자가 된다. 기업 이윤의 일부가 문화예술을 통하여 지역사회로 환원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삶의 향유 형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역문화생태계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감정적 유대 관계를 형성함은 물론 기업이 지역과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과 '지역문화'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중요한 플랫폼이 된다.



BNK 경남은행
지역사회공헌활동

BNK 경남은행은 지역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비전에 따라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도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과 기업 모두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대카드
'가파도 프로젝트'

2012년 현대카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가파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들을 재개발하는 형태가 아닌 '경제와 문화 그리고 생태계의 복원'에 초점을 두고 운영주체도 '섬 주민'에 맞추었다. 마을 속 오래된 집들은 제주 전통 가옥의 구조와 형태에 기초하여 리모델링되었고, 톳, 미역, 청보리 등 가파도 특산물들은 세련된 포장 디자인의 옷을 입게 되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도입되고 새로운 디자인의 기념품들도 개발되었다. 이외에도 여객터미널, 게스트하우스, 스낵바 등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신설되면서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기존의 재생사업과는 달리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가꾸어 온 섬문화와 가파도의 원풍경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사진은 이 프로젝트의 중심축을 담당한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다. 아름다운 가파도의 풍경에 문화와 예술을 더한 공간으로 현재 국내외 예술가들이 상주하며 가파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마켓 4.0 모델을 고려한 지역 기업 메세나 활동의 특성

커뮤니티	▶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 조성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PVI	▶ 정책, 프로그램에 시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있는가? ▶ 기획 과정에서 시민과의 협업은 이루어졌는가?
수평적	▶ 가치를 기반으로 한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는가? ▶ 지역 구성원의 만족도를 우선시 하였는가?
케어	▶ 목표와 중점 가치를 뚜렷하게 설정하였는가? ▶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지역과 지역문화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기업과 예술가, 행정과 지역민 등 지역사회 구성 요소들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수평적 구조 속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기업의 문화마케팅이 경제적인 목표에 몰두했었다면, 이제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를 고민할 때이다.

지역문화와 메세나의 활성화는 경제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를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적으로 추구할 때 문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지역과 기업, 예술가 그리고 지역민 모두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글 _ 정인정 / 사진 _ Bao

경남프리모앙상블 창단20주년 정기연주회

경남프리모앙상블 & 경남프리마앙상블

×

청아의료재단







'인성' 좋은 남성들의 묵직한 울림, 경남프리모앙상블

조명이 켜지자, 뚜벅뚜벅 경쾌한 구둣발 소리가 무대에 울린다. 이윽고 등장한 8명의 남성들. 가장 왼쪽에 선 남성이 살포시 눈빛을 보내자 중저음의 깊은 울림이 공연장에 울려 퍼진다. 아, 남성의 목소리가 저렇게도 아름다웠던가. 중저음의 어울림이 저리도 깊었던가. 두둥두둥 노래 리듬과 함께 심장이 뛴다. 가슴이 뛴다.
무대의 주인공은 경남프리모앙상블. 경남 최초의 남성 중창팀이다. 보통의 연륜이 아니다 했는데, 2018년은 창단 20주년이 되는 해. 역시 그랬다.

모든 것은 조미숙 예술감독에게서 시작됐다. "1998년에 유학 후 첫 독창회를 위해서 코러스를 담당할 남성 중창팀을 꾸리게 되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 중창팀을 살려야 된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앙상블'이란 말조차 낯설었던 시절, 이탈리아어로 '최초', '남자 주인공'이란 뜻을 지닌 '프리모'를 붙여 경남프리모앙상블은 그렇게 탄생했다. 피아노 연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8명 내외, 지역에서 제각각 연주자의 길을 걸으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성악가들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멤버는 조금씩 변해왔지만, 이대호, 김기환 2명의 창단멤버가 주춧돌처럼 늘 함께 하고 있다.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포함해 적게는 서너 건, 많게는 십여 건의 무대를 열어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부득이 떠나야하는 멤버들은 늘 아쉬워하고 항상 프리모를 그리워한다고.

'경남프리모앙상블'의 공연은 이제 관객들이 먼저 찾아와서 보는 무대가 됐다. 경남 곳곳에 프리모 공연을 챙겨보는 이들이 생겨났고, 공연장 무대 스태프들도 근무시간을 바꿔서 들어올 정도로 누구나 가고 싶은 공연이 됐다. 어느 해인가는 12월 폭설로 연주자들조차 겨우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때였는데 프리모 공연을 놓칠 수 없다며 객석을 메워준 팬 층도 꽤나 두텁다.

경남프리모앙상블이 이렇게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대호 단무장은, 앙상블에서 가장 중요한건 배려라고 말한다. "내 소리를 죽여야 될 때도 있죠. 다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여서 사운드를 합쳐가는 게 앙상블이니까요. 자신을 죽여가면서 전체가 다 같이 한마음으로 배려해줘야 진짜 좋은 소리가 나죠." "그런 소리가 나면 듣는 분들도 좋지만, 우리도 짜릿합니다. 그 맛에 하는 거죠" 옆 사람에 기댈 수 있다는 것, 내가 좀 부족해도 충분히 채워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래서 경남프리모앙상블이 언제나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까닭일 것이다.



20년 동안 불협화음 한번 없었다는 경남프리모앙상블. 이토록 관계가 좋은 이유가 뭘까? 이대호 단무장은 "한 사람 한 사람 인성이죠. 좋은 연주자보다는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아주 좋거나 팀에 들어오고 싶어 해도 우리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라며 프리모만의 비결을 살짝 털어놓았다.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 단원 스스로 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리를 내어준다. 그리고 자연스레 또 다른 후배들이 자리를 채운다. 팀과 서로를 위한 배려가 꽤나 깊다.

노래도 잘 해야 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조미숙 예술감독, 한번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인연을 끝까지 지켜간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앙상블'이란 이름에 걸맞게 이들의 무대뿐 아니라 참 조화롭다.

"여기 이대호 선생(단무장)이 유하게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야단을 주로 치거든요. 제가 채찍이라면 여기는 당근입니다. 조화가 되는 거죠" 조미숙 예술 감독의 말에 오랜 신뢰가 묻어난다. "처음 들을 때는 쓴 소리 같지만, 음악을 해보면 그게 다 답인 거예요. 그걸 단원들이 느끼기 때문에 쓴 소리를 하셔도 그게 맞구나 하고 달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달래주지 않아도 돼요." 쑥스러운 듯 대답하는 이대호 단무장에게도 역시 깊은 믿음이 전해진다.

눈부신 팀워크로 만들어내는 17년의 무대 경남프리마앙상블

'경남프리모앙상블'를 지켜본 주변 여성 연주자들의 요청이 조미숙 예술감독에게 쏟아졌다. 그렇게 해서 2002년에 자매단체인 여성중창팀 '경남프리마앙상블'이 결성됐다. 프리마 역시 벌써 17년을 넘어섰다. 임신을 하고도 아이를 낳고도 무대에 섰다는 신정옥 단무장. "졸업 후에 개인 레슨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무대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시간을 조정하고 조정해서 '경남프리마앙상블'의 일원이 됐다. 지금은 단무장으로 프리마를 잘 끌어가고 있는 그녀, 프리마 역시 매번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눈부신 팀워크'에 있었다. "같이 노래하는 우리끼리 서로 좋아야 그 해 연주가 잘 되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연락해서 같이 가자 하고 챙기고…. 관계가 되니까 앙상블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관계가 잘 돼야 너네 파트 좀 그렇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켈트 음악 등 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는 프리마들. 늘 다음엔 뭐할까, 내년엔 뭐할까? 고민이 즐겁단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걸 시도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경남프리마앙상블, 앞으로의 무대가 더 기다려진다.











20년 한결같은 지지자, 청아의료재단 이사장 최재영 단장

'프리모의 20년' 믿음으로 함께 한 파트너가 또 있다. 바로 단장을 맡고 있는 청아의료재단 최재영 이사장이다. 이 둘은, 경남메세나협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모범적인 결연단체다. 하지만, 이들의 인연은 메세나협회 설립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경남에선 수많은 메세나 결연의 롤 모델이다. 어떻게 인연이 됐냐는 질문에 공연을 보고는 '가슴이 뛰었다'고 대뜸 말하는 최재영 단장.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조미숙 예술감독에게서 단장 제의가 왔을 때 지체 없이 수락했다고 한다.

연주회 때마다 여러 기업체를 쫓아다니며 후원받느라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조미숙 예술감독으로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셈. '프리모'에 이어, 처음엔 다른 단체와 결연을 맺었던 '프리마'까지 함께 후원하고 있다.
연주회에 올 때 마다 무대에서 같이 연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뛴다는 최재영 단장. 그 중에서도 단장이 된 후의 제일 첫 번째 공연 때 받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

"늘 연주자들은 무대를 그리워하는데 모두 다 설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보람을 느끼고, 또 무대를 통해 감동을 받아가는 거죠" MT를 가게 되면 고기 굽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최재영 단장은, 한없이 지켜봐주고 끝없이 지지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았다. "우린 워낙 서로를 믿는다"는 짧은 한마디가 '프리모' '프리마' 그리고 청아의료재단. 이들이 함께 한 20년의 시간을 설명해주는 듯하다.

이들과의 길지 않은 인터뷰 후, 공연을 기다리며 '경남프리모앙상블' 20주년 기념 연주회 팜플렛을 찬찬히 읽어보다 최재영 단장의 인사말이 새로이 눈에 띄었다. 그의 인사말은 한 시구로 시작됐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봄 길' 중〉

음악으로 가슴 뜨거운 사람들, 이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모아 만들어가는 음악의 길이 언제나 '봄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 _ 정인정 / 사진 _ Bao

5개 김해예술단체가 만든
그랜드 오페라
지역문화의 큰 울림으로...



김해가야오페라단 11주년 기념 정기공연 라 트라비아타

김해가야오페라단
×
디엠솔리스트앙상블
따소미문화예술단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문화가 꽤 대중화된 요즘이지만 제대로 된 그랜드 오페라를 1년에 한 번 보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제대로 된 그랜드 오페라를 1년에 한 번 무대에 올리는 일은 어떨까? 그것도 인구 53만의 중소도시에서 그들 자체의 예술단체들로만 만들어냈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 싶다. 여기 김해에서 해마다 지역 문화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다.

김해가야오페라단 11주년 정기공연 협업으로 이뤄낸 감동의 무대

드디어 1년을 준비한 무대, 그 장막이 열렸다. 깔끔하고 세련된 무대, 화려하게 재현된 의상과 소품, 흐트러짐 없는 실력으로 노래를 뽐내는 배우들, 거슬림 없이 흐르는 피아노 반주까지, 준비만큼이나 무대는 완벽했다. 어떻게 지역에서 이런 오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번 공연의 중심에 있는 김해가야오페라단은 놀랍게도 벌써 11주년을 맞았다. 그리고 2018년작 '라 트라비아타'는 그랜드 오페라로는 두 번째로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다. 갈라를 포함하면 총 3번째 오페라인 셈이다.

김해가야오페라단 강동민 단장

2002년 창원에서 김해로 이사 왔는데, 문화적 활동이 너무나 열악하더군요. 이 지역 사람들도 부산, 창원으로 공연을 찾아 떠나는 실정인 게 너무 안타까워 김해가 중심이 되어 김해로 찾아오게 만들자, 포부를 가지고 예술단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오페라 한편 올리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스갯소리지만 집 몇 채 팔았습니다. (웃음)

농담인 듯 말했지만 정말 그랬을 것 같다. 지역에서 오페라단 같은 큰 규모의 예술단체를 운영한다는 게 어디 쉽겠는가? 소위 '귀족 예술'이라 불리는 오페라는 무대며 의상만 봐도 화려함 그 자체다. 거기에 배우들은 물론이고 음악, 오케스트라에 여러 무대 스태프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대식구.



김해가야오페라단 강동민 단장

오페라는 오케스트라, 합창, 무용도 있어야 하고 여러 분야가 함께 같이 하는데, 우리 김해 지역의 여러 예술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협업으로 이겨내는 거죠.
경제상황이 어렵고 자연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형태의 예술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지역 신인 성악가를 위한 무대 기획 디엠솔리스트앙상블

아리아와 합창 등은 젊은 성악가들로 구성된 디엠솔리스트앙상블, 공연기획과 청소년 예술과의 연계, 진행을 도맡고 있는 따소미문화예술단, 피아노 반주를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 오페라 음악을 책임지는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김해가야오페라단의 식구들이다.

디엠솔리스트앙상블 정승화 단무장

주로 노래하는 신인 성악가들로 이뤄진 단체에요. 음악가들은 졸업을 하면 당장 취직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저 역시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그런 후배들에게 신인 무대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오페라 조연도 하고, 또 여러 무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경험과 실력을 쌓아서 더 나은 길로 발돋움할 수 있게 그렇게요.
실제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다른 단체에 발탁돼 가는 친구들을 보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죠.

'김해'가 뜻하는 '금빛 바다'는 이탈리아어로 '디오르 마레'라고 한다. 이 단어의 앞 철자 D와 M을 따온 디엠솔리스트앙상블. 화합과 하모니가 가장 중요한 무대인 오페라이기에 단원들끼리 자주 얼굴을 마주보고 화음과 연기연습을 해오다보니 20명 단원들 사이가 상당히 돈독하다.
선발기준이 '외모'라는 건 극비 중의 극비라며 여유롭게 농담을 풀어내는 모습에서 디엠솔리스트앙상블의 자유롭고도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단원들을 선발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디엠솔리스트앙상블 정승화 단무장
오페라는 물론이고 모든 앙상블 무대는 화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노래는 물론 기본이고, 오디션이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충분히 화합할 수 있는 음악가인가를 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또 음악에 대한 갈망, 앞으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지를 보는 거죠.

오페라의 연주를 책임지는 조력자,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

대사와 노래가 섞여있는 뮤지컬과는 달리,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 아리아와는 구분되지만, 대사조차 노래로 만들어져 있다. 그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는 단체가 바로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 그리고 이효상 지휘자가 이끄는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이다. 특히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는 연습 때부터 여러 달 함께 해온 식구이다.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 장미영 단장
인제대학을 졸업한 음악 전공자들이 함께 모인 단체입니다. 처음엔 06학번 피아노 전공자들만의 모임이었는데요, 지금은 여러 선후배가 함께 하고 있고요, 피아노가 아닌 다른 악기 전공자들도 모였어요. 김해에 연고를 둔 단체이다 보니까 가야오페라단과 교집합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갈라 오페라든 연습이든 함께 합니다. 따로 진영 한빛도서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이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부공연을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해마다 기획 공연에 앞서 어떤 컨셉으로 어떤 무대를 만들까 머리를 많이 싸맨다는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 단원들. 항상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이나 기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대를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닌 원칙이 되었다.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 장미영 단장
여러 해 반복해서 공연하니까, 이제 '아~ 늘 이런 공연을 하니까'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오시는 분들은 해마다 또 오시거든요. 특히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꼭 스크린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 끝나고 나서 '너무 너무 좋았다' 그 한 마디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사르르 녹아 내리는 거죠 뭐. 그렇게 고정팬들이 생기니까 우리 공연이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도 들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보람차죠.







미래세대를 위한 오페라 문화토양 만들기 따소미문화예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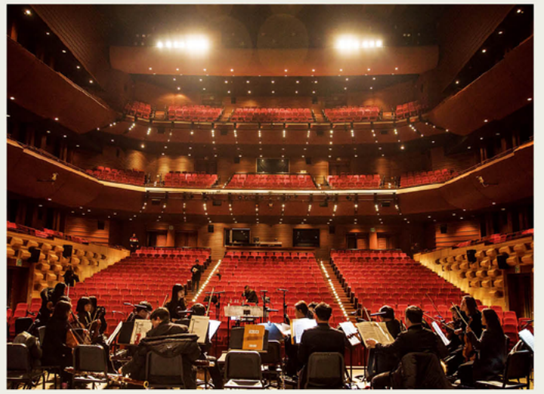
원어 그대로의 오페라지만 무대는 친절하다. 배우들의 한소절 노래마다 무대 양쪽 스크린에는 한국어 자막이 흐른다. 그야말로 제대로 된 오페라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든 장치 아닌가. 특히나 인상적인 건 3회 공연 가운데 둘째 날 낮 공연은 학생 관람객이 많았다는 것. 따소미문화예술단이 주축이 돼 지역 중고생들에게 오페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소미문화예술단 김선주 단장
저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소속된 예술단체인데요, 그곳 마스코트 이름을 딴 단체예요. 상반기에는 예술을 전공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요, 하반기에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장유 시민들을 위한 송년 공연행사, 그리고 김해가야오페라단에 약간 도움을 드리고 하죠. 아이들이 오페라를 쉽게 접할 수가 없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오페라를 직접 접해보면, '이것도 재밌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봄부터 올해는 언제 하냐, 아이들이 기다린다,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문의주시는 학교가 많은데, 그럴 땐 비용을 생각하면 3회 공연을 2회로 줄이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도 미래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뿌듯하죠.

무대는 아주 훌륭했다. 봄부터 기획하고 실질적인 주연, 조연 신발에서 트레이닝까지 3~4개월 정도 열심히 땀 흘린 노력은 무대에서 고스란히 빛났다. 쏟아지는 관중의 박수 소리 속에, 그간의 수고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스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다. 실질적인 업무를 해온 따소미문화예술단의 김선주 단장은 또 한편 두렵다고 했다.

따소미문화예술단 김선주 단장
3600석 좌석을 다 채우고, 많은 분들이 호평해 주시면, '아 하면 되는 구나' 자신감이 생겨서 또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김해쪽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획 단계에서 약속한 부분이 이행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장이 어려운데 문 두드리면서 '약속 이행해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죠. 5개 단체가 하면 어떻게든 아무 문제없이 올려질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하고 싶은 오페라는 있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용 마련은 늘 어려운 숙제" "좋았다" 관객 한마디에 또 힘이 난다

다행히 이번 '라 트라비아타' 공연은 불경기 속에서도 김해시가 지원을 늘려줬고 이에 대한 경남메세나협회의 매칭 펀드도 2배로 늘었던 것,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오페라 공연을 성황리에 치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관객들의 한 마디에 또 다시 힘을 내는 게 무대를 사랑하는 모든 예술인들의 본능. 그래서 이들은 '오페라' 무대를 놓을 수 없으리라.

김해가야오페라단 강동민 단장
작년 돈 파스콸레 공연 때, 어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공연을 보시고는 '자기 인생에서 이런 오페라는 처음'이라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간 힘들었던 사정이 봄눈 녹듯이 잊어지더라고요. 김해는 아직 기업 사정이 열악하고 지원도 어렵지만 시나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준다면 힘들어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예술단체가 있는데, 그 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가야오페라단이 척박한 지역 오페라단의 현실 속에서도 11년간 꿋꿋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디엠솔리스트앙상블, 따소미문화예술단,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 이 '다섯 식구' 들의 힘이 아닐까 싶다.
'김해' 라는 지붕아래 지역문화를 위해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 이들이 만들어갈 다음 무대는 어떤 즐거운 맛일지 기대된다.

글 _ 메세나 / 사진 _ Bao

경남미술청년작가회 김상효 회장

지난 9월, 통영시민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는 '이팔청춘 아트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축제는 마산, 진해, 창원, 통영 지역 작가들이 모인 '경남미술청년작가회'의 주최로 열리는 종합 미술 프로젝트다. '경남미술청년작가회전: ART COMBINE 2018'에서는 통영미술청년작가회가 중심이 되어 청년의 정직함이 만드는 오늘의 미술과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의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이외에도 아트마켓과 미술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젊은 작가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열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전시회와 페스티벌을 총괄하고 이끈 김상효 경남미술청년작가회 회장을 만나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그려가는 청년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좋은 경남미술청년작가회장 김상효입니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 디자인 기획실과 미술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작품 활동은 디자인과 서양화를 접목하여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세계를 이미지화하여 화폭에 담아냈을 때 대중의 감동보다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작품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경남미술청년작가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마산, 창원, 진해, 진주, 통영 5개 지역의 청년작가회가 연합하여 2015년에 창단한 단체입니다. 현재는 마산, 창원, 진해, 통영, 거제, 밀양 6개 지역의 지역별 분야별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작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소통을 통해 서로 활력을 나누고 정진의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입대상은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20세~45세의 청년작가들입니다. 매년 정기전시회를 비롯하여 기획전, 페스티벌, 미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기업 미술교실 출강, 마을 벽화사업 등 사회 공헌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Q3 오늘부터 '이팔청춘 아트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팔청춘, 10대와 20대 사이" 젊은 청춘시절 향수를 그리워하며 만든 페스티벌 명입니다. 이팔청춘 아트페스티벌은 통영지역의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일환인데 2년 전부터 경남미술청년작가회와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의 색이 묻어나는 축제와 전시를 기획하여 경남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는 통영미술청년작가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통영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을 재조명할 예정인데요,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역 청년 작가들의 마음과 열정이 오롯이 담긴 전시회 오프닝을 두 시간 남짓 남기고 이번 축제와 전시 작품들에 관해 설명하는 김상효 회장의 표정은 무척 들떠 보였다. 그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창작활동 이외에도 생계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집중력 있게 전시회를 준비하는 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벽에 걸린 작품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조심스럽게 화제를 바꿔보았다.

Q4 청년 미술작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청년!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보여줄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낙오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전업작가로서 활동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성장통이라 여깁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과 외로움들을 작품에 녹여내어 대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작가들은 기쁨도 성장통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Q5 작가로서의 예술성의 추구와 생활인으로서의 상업성의 경계에서 느끼는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당연합니다. 창작 활동을 하면서 작가들이 작품의 판매 가능성이나 유행, 대중들의 취향에 대해 고민하면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한편으로는 현명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술성이나 상업성의 기로에서 한쪽을 선택한다기보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중심을 두고 충실하게 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6 요즘 사회적 문제로 '청년 실업'이 화두입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술 학도 출신의 청년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훨씬 이전부터 전업작가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오셨습니다. 버티어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작가의 길을 포기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청년작가 당사자로서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공공예산이 반영되는 기획전시가 좀 더 다양해지길 바랍니다. 많은 젊은 작가들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재단의 문예기금 지원 제도의 도움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전시회를 열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남메세나협회의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남미술청년작가회도 메세나와의 인연을 계기로 더 많은 기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Q7 기업과 메세나의 역할이 그 어느 영역에서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앞서 작가들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젊은 작가들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단체로서 경남청년미술작가회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네 당연합니다. 더 좋은 작품을 위해 작가 스스로 헌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남 미술 발전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고요. 또 작품으로 대중들과 소통해야지요.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 관객들이 작품을 즐기고, 작품에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도움들을 돌려드리는 일이니까요.

Q8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경남도청 갤러리에 우리 지역 청년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365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청에 전시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남미술청년작가회가 인테리어 설계부터 전시 기획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개관 전시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지회별 작품들을 모아 릴레이 전시를 기획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김경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글 _ 메세나 / 사진 _ Bao


노부스콰르텟


김봄소리 X 문태국


황수미 X 문응휘

STARS on STAGE 2018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틈새를 이용해 어렵사리 크레디아 스타쉽 이강원 이사와 첼리스트 문태국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연주자와 관객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평소 친분이 있는 공연기획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엄청난 공연이 열리는데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포스터를 보는 순간, 결심했다. '어머, 이건 가야 해!'라고. 국내 굴지의 클래식 매니지먼트사인 목프로덕션, 크레디아, 빈체로, 봄아트프로젝트, 아트앤아티스트, 스테이지원, 스톰프 뮤직이 공동 주최한 이 공연에는 각 매니지먼트사의 간판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8월 15일 하루 동안 4회에 걸친 릴레이 공연을 펼쳤다.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경력이 연관검색어처럼 떠오르는 '노부스 콰르텟', '선우예권', '임동혁', '김선욱', '김봄소리', '문태국', '김수연' 등 이 음악가들이 보여줄 감성과 기교의 조화는 어떤 축제의 향연 속으로 나를 끌어들일까. 내 마음을 빼앗아 갈 것을 확신하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안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Q1 안녕하세요. 이번 공연은 이강원 이사님께서 주도적으로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 최초로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하신 첼리스트 문태국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의 공연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개최 배경이 궁금합니다.

클래식 음악계가 안고 있는 보수성은 좋게 말하면 개성이 강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큰 벽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점이 우리 클래식 음악의 영역이 통제구역권 내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젊은 아티스트들이 내일의 거장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그 벽을 허물고 뭉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기획사들이 먼저 경쟁사가 아닌 업계 전반의 판을 키우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클래식 문화의 토양을 닦아 나갈 수 있다는 자기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클래식계를 지켜나가는 관객과 스태프 그리고 후원자들에게도 이번 공연을 통해 감사의 표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Q2 오늘처럼 하루 4회에 이르는 릴레이식 공연은 무척 생소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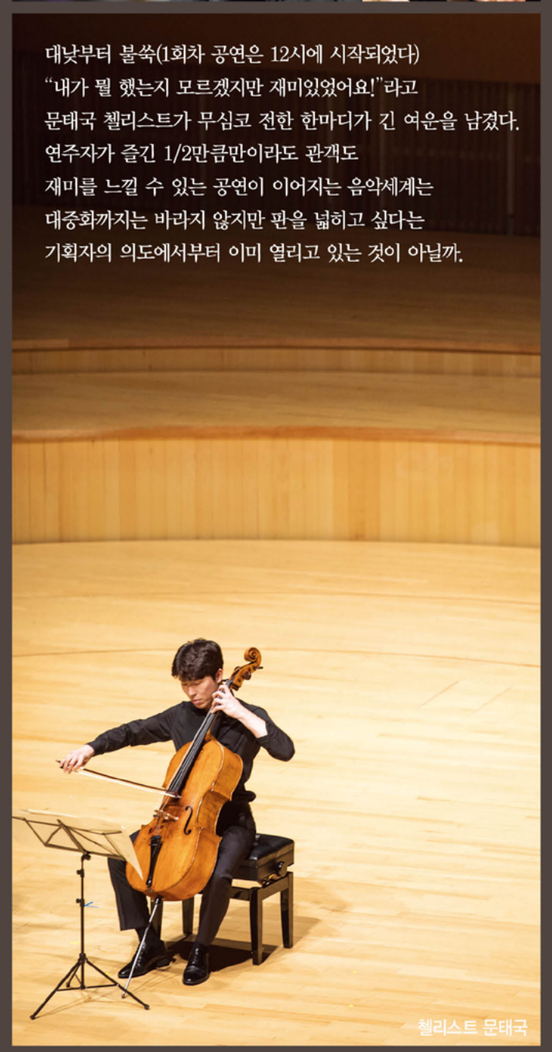
크레디아 정재옥 대표님의 아이디어셨어요. 클래식의 대중화라는 거창한 의미보다는 한국 매니지먼트사들의 연합으로 연주자들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파격성과 신선함을 추구하다 보니 릴레이 형태가 된거예요. 일본 벳부 아르헤리치 페스티벌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Q3 파격적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릴레이식 진행 자체가 록 페스티벌을 연상케 하는데요...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어떠셨나요?

국내에서는 첫 시도이지만 외국에서의 사례는 더러 있어요. 일단 무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었어요!



대낮부터 불쑥(1회차 공연은 12시에 시작되었다)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었어요!"라고
문태국 첼리스트가 무심코 전한 한마디가 긴 여운을 남겼다.
연주자가 즐긴 1/2만큼만이라도 관객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이어지는 음악세계는
대중화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판을 넓히고 싶다는
기획자의 의도에서부터 이미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첼리스트 문태국

Q4 문태국님을 비롯하여 오늘 공연에 참여하시는 아티스트들은 국내외 음악계에서 명성이 대단한 분들이시잖아요. 한국의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휩쓸고 있습니다. 'K-Classic', '클래식 한류열풍'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요. 그런데 모순적이지만 "클래식의 위기"라는 이야기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큰 문제예요. 연주자들의 기량이나 학문적 위상은 매우 높은데 비해 국내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무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표가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Q5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공급은 많아요. 훌륭한 연주자는 쏟아지는데 수요자인 관객층이 약한데 숫자도 문제지만 젊은 관객이 너무 드물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관객 숫자 대비 공연이 많으니 이 벽을 넘기 위해 연주자와 기획사가 역할을 인식하고 판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Q6 개인적으로 지난 2년간 국제 실내악 축제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세계적인 콩쿠르를 통해 데뷔한 실력과 기량을 갖춘 아티스트 공연보다 잘 알려진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관객이 집중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만큼 신예 연주자가 일반 대중들에게 인지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공감합니다. 접근성의 문제인데요.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동일한 곡에 대한 연주기법의 차별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림을 감상할 때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음악도 역시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인데 알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알고 싶어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이나 매체도 없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클래식이 관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공연 역시 이런 형태로라도 잦은 접촉의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에티켓



"클래식". 듣기만 해도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단어다.
우아한 드레스, 날렵하게 차려입은 연미복,
화려한 조명 아래 웅장하게 도열해있는 오케스트라의 위압감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다.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찾아가는 연주회장에서 나는 깊은 침묵 속에서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 이내 피어나는 박수소리에 이끌려
무대 위 연주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나만 그런 것일까?

클래식 공연이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아마 그 특유의 문화가 주는 어색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클래식 공연 에티켓 몇 가지만 숙지하면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팸플릿을 읽자.

공연을 감상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공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뭘 듣게 될까?'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공연장에서 느끼는 감동도 적어지게 마련이다. 미리 나눠주는 팸플릿을 챙겨 누가 작곡한 것이며 어떤 내용인지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힌다.

〈Beethoven – Piano Sonata No.14 in C Sharp Minor, Op. 27〉.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여러 번 읽어보아도 도대체 어떤 곡인지 연상되지 않는다. 사실 이 곡은 우리 모두 잘 아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Moonlight)'이다. 조목조목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작곡가(베토벤), 그다음에는 장르(피아노 소나타), 곡 번호(제14번), 그리고 곡의 스타일을 좌우하는 장단조(올림 다 단조) 마지막으로 작품 번호(Op. 27)다. 막상 풀어 해석하고 보니 별것 아니지 않은가? 복잡해 보이는 클래식 작품 제목들은 작곡가의 작품을 분류하며 번호를 매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착화된 규칙일 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분류한 제목을 통해 작곡가의 스타일 변화나 음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참고로 잘 알려진 '월광'이란 제목은 베토벤 사후에 한 음악평론가가 이 곡의 1악장에 대해 '달빛이 비친 스위스 루체른 호수 위에 떠 있는 흔들리는 조각배'라고 비유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수에도 타이밍이.

클래식 곡들은 대부분 3~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1악장은 빠르고 생동감이 넘치는 반면 2악장은 느리고 낭만적으로 흘러간다. 3악장은 춤을 추는 기분으로 진행되며 4악장은 밝고 힘차게 연주하면서 1악장의 테마를 반복한다. 한 편의 소설처럼 한 작품 안에서 기승전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주자들은 악장과 악장 사이 잠깐의 시간 동안 다음 악장을 준비하며 감정을 가다듬는다. 몰입 중인 연주자들을 배려하여 연주에 대한 감동은 모든 연주가 끝나고 여음을 충분히 즐긴 후 박수와 환호를 통해 열렬히 전달하면 된다. 그래도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면, 연주자나 지휘자가 관객을 향해 인사할 때, 바로 그때 치면 된다.

즐기자.

최소한의 공연장 에티켓은 지키되 이 또한 공연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하자. 클래식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울림에 나를 맡기면 된다. 곡이 표현하는 감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가사도 없는 클래식은 그 어떤 음악보다 자유롭고 주관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장르다. 주신율을 연주하는 악기와 서로 배려하며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클래식은 그 자체로서 '상생'이며 역동적인 음악이다.

사천 — 실안낙조



응기종기 떠 있는 그림 같은 섬과 죽방렴 그 너머로 내려앉는 큼지막한 불덩어리
'하늘이 붉으니 바다도 붉어라' 실안의 저녁을 경험하지 않고 낙조를 논하지 말지니
사천팔경의 제2경 '실안낙조' / 사진가 _ 이상현

글 _ 정인정 / 사진 _ Bao

가족의 역사, 문화공간되다.

사천 카페 정미소

쌀 저장고를 먼저 자신만의 작업실 겸
전시공간으로 페인트칠에서 벽에 걸린 못 하나까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꿔나갔다.
그렇게 쌀창고로 이용하던 공간이
〈카페 정미소〉, 〈공간 쌀〉, 〈작은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3대의 역사가 깃든 정미소로 떠나보자!





경남 사천시 진삼로 150
Tel 055-834-1474
OPEN 10:30 CLOSE 22:30 •LAST ORDER 22:00

카페 공간으로 들어서면, 높은 천정과 이곳 전체를 지탱하는 오래된 나무 골조, 그리고 카페 중심을 차지한 거대한 빨간색 도정기는 이곳 카페 정미소의 '아이덴티티'이다. 정미소의 기본 틀이나 기계 장비를 그대로 살리고, 곳곳에 이색적인 조각 작품들, 그림, 조형물들이 가득 놓여있다.

빨간색 도정기는 이곳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전하는 듯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아오신 이야기와 이곳의 역사, 이 집안이 역사를 그대로 전하는 듯 장엄하다.

도정기 앞에 층층이 놓인 흑백텔레비전 속엔 이곳의 옛 모습과 변화과정을 담은 영상이 재생 중이다. 곳곳엔 옛날 소품들과 철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자재들이 자연스레 놓여 투박함과 멋스러움이 교차한다. 10년째 이곳을 손보고 있다는 이가형 대표. 직접 모든 공간을 꾸미려고 하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한다. 돈이 많이 부족하던 그 어느 해는 잠시 멈추기도 하고,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정미소 당시 사용했던 물건들과 세월의 흔적들은 최대한 살리려 애쓴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이곳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졌다. 작은 탁자 테이블은 동료 작가들이, 곳곳의 작품들은 선후배들이 만들어준 작품이라 하니 놀랍다. 카페 한곳이 조금씩 다른 공간이면서 또 전체적으로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참 독특하다. 주문한 음료와 같이 나온 쌀뻥튀기 과자마저 정겹다. 주인장의 세심한 배려와 재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공간 〈쌀〉에는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전시도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전시는 이가형 대표가 직접 고르고 준비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골로 자체 기획 전시뿐 아니라 원하는 이에게 공간을 대여하기도 한다. 각종 공연과 강연을 기획하고, 작은 도서관도 함께 운영한다. 공연 부분은 첼리스트인 아내가 도맡아 운영한다. 지금까지 20회가 넘는 공연들이 진행됐는데, 이제 연주자들도 이곳에서의 연주를 희망하는 상황. SNS나 인터넷검색을 통해 공연 스케줄을 체크하고 예약해 멀리서 찾아오는 관객들도 꽤 많다.

쇠퇴하면서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정미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던 이가형 대표. 평소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선대의 손때 묻은 기계는 멈췄지만, 사천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카페 정미소. 이제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났을 정도로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손님, 작가, 관람객…
모두 공간이 좋아서 찾는 이들이다. 3대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공간이 좋아서.











글 _ 메세나 사진 _ Bao





오백고지 청정지역이 만든 깊은 차향

지리산 청강원
晴崗院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578-54
Tel 055-974-2757
OPEN 9:00 CLOSE 18:00

맑은 기운이 내려앉은 언덕을 향해 이정표 하나 없는 길 없는 길을 찾아갔다. 경남 산청군 중산리 중턱, 이곳을 지키는 청강 윤경순 명인은 이곳이 지리산의 중심이라 일컬었다. 그 중심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어 잘못 들어선 길이 아닐까 싶어 접고 내려갈 작정을 두서너 차례 했다. 정이 묻어나는 쾌청한 미소로 먼 길 온 손님을 품어주는 명인을 마주하는 순간 앞으로의 전진이 다행이었구나 하는 안도의 큰 숨을 몰아쉬었다.

초겨울의 신선한 냉기가
코를 스쳐 가슴 한복판을 뻥 뚫어주니
이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청강원, 그 이름에 스민 의미를 먼저 물었다.

청강은 저의 호입니다. 개일 청, 언덕 오를 강. 언덕에 올라보니 하늘이 개더라.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느낀 감정과 똑같아요. 당시 유럽에서 중의원을 운영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이곳 지리산 자락을 찾은 것이 인연이 되었어요.

유럽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30대 초반에 중병을 앓게 되면서 온갖 의학의 힘을 기웃거렸지만 결론은 나 자신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몸과 마음의 운영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중국 의학을 접하고 관련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활인(活人)이 되는 곳을 찾아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그 곳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제가 배운 중국의학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고 대체의학이라는 별도의 분야로 취급하여 다소 폄훼하는 면이 있지만 생명의학의 영역에는 본의학과 대체의학의 구분이 없어요. 네덜란드에서는 그 자격을 인정해주어 그곳에서 침술과 탕제를 병행하는 중의원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던 이영표, 송종국 선수도 간혹 다녀갔습니다.

현지인들과도 왕래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공수해 간 약제들을 전통방식으로 보급하려 했는데 그것이 저의 실수이기도 했고 동시에 발상의 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어 약초차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안 허브티(Korean Herbal Tea)라고 해야 할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약초차의 특이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실은 저는 약초차를 오리엔탈 메디슨 허브티(Oriental Medicine Herbal Tea)라고 이름 지었어요. 제 욕심이 컸을까요? 우리 문화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현지인들에게까지 탕약을 음용하게 했더니 그 짙은 맛을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허브티의 개념이었고 제가 가져갔던 약제 중에서 음용 가능한 것들만 남겨두고 모두 버렸어요. 제일 먼저 구기자 발효차를 만들어봤어요. 그렇게 "고지베리 티(Gojiberry Tea)"가 탄생했습니다.

반응은 어땠나요?

구기자가 지닌 고유의 단맛이 서양인들의 입맛을 제법 충족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차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약식동의(藥食同意)의 의미에 큰 가치를 둡니다. 약(藥)은 사후처방이 목적이라면 식(食)은 예방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의학이 예방의학이잖아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내분비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바로 우리의 식생활과 생활방식, 정서적 안정감으로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수록되어 있는 식용 가능한 약제들을 분류하고 성질을 분석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식재료로 요리를 해도 레시피나 기분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 약재료 역시 다듬는 방식이나 가공 순서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지기든요. 그게 바로 "법제"예요.







선생님께서 중시하는 법제 중 약초차에 접목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구증구포(九蒸九曬·약재를 쪄서 햇볕에 말리기를 9번 거듭함)에 의한 발효법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녹차는 덖음차 위주이고 보이차는 발효차잖아요. 그런데 보이차의 발효법과 달리 우리 약초차는 구증구포에 의한 발효법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만 그것이 약초차의 독성을 제거하고 효능을 가장 극대화하여 맛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오행과 연관 지어 온기를 올리고 내리는 블렌딩 방식을 고안하여 침출차로 만들어 쉽게 즐길 수 있게 하고 맛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감각으로 해석하여 글로벌한 차 문화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도 아니고요. 지리산에 집을 짓고 약초를 재배하신지도 벌써 10년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리산 청강원에 대한 홍보성 이정표도 하나 없다는 점이 조금 의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직 스스로 만족한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하면 지나친 겸손이라 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오직 만들고 연구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차도 이 공간 청강원도. 그런데 누가 자꾸 찾아오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이상은 무엇인가요.

저의 생활철학은 우공이산(愚公移山)입니다. 중국에 우공이란 자가 묵묵히 한 삽 한 삽 떠서 결국에는 산을 옮겼다는 일화가 있어요.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명은 활인(活人·사람의 목숨을 구하여 살림)이라고 여깁니다. 자연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천혜의 자연을 활용하되 훼손하지 않고 인간의 손길로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해주면 생명 상호 간의 교류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통과 상생이에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한 삽 한 삽 산을 옮기실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에 이청운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무려 256년을 산 장수왕이죠. 뉴욕타임스에서 이청운의 장수 비법을 공개했는데, 평생 구기자 농축액을 음용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문화입니다. 차를 놓고 본다면 차는 둘 이상 함께하면 소통의 문화가 되고 혼자일 때에는 정갈하게 격식을 차린 차 한 잔이 자기존중의 문화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열고 서로를 열면서 주고받음의 기의 교류가 디톡스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에 근거한 티 테라피 힐링문화를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약초차의 대중화와 고급화, 투 트랙(two-track)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약초차의 대중화는 제 후계자인 이유민 실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 송파구에서 지리산 힐 라운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라테스트를 통해 체질이나 컨디션, 에너지 등을 분석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치유법과 약초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이곳 지리산 청강원은 전인적인 힐링 공간으로 가꾸어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로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차로 정(情)을 나누고 향으로 상을 밝히며 자신의 내면을 여행하는 공간으로 입지를 굳히고 싶어요. 좀 더 깊이를 더해서 외국인들에게도 소박함 속에서 디테일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남의 것을 흉내내지 않고 맞춤형 1:1 솔루션을 제시하는 전인치유법으로 마음과 몸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우리집 장독대에 쌓인 눈을 보며 나눈 차 맛과 분위기는 국경의 경계를 허문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정이에요.

선생님의 매력에 푹 빠진 시간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체질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도 두루두루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약초차를 추천해주신다면요.

구증구포의 방식으로 냉기를 완전히 소멸시킨 구기자차는 누구에게나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화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가 통하는 차예요. 그래서 기통차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총합한 블렌딩 차입니다.

오랜 시간을 머물다 헤어지는 아쉬움을 뒤로하며 내려오는 길. 자연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은 자연을 살린다는 이치가 스침을 느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생각이 무심하게 지나치던 이 땅 위에 발길을 머물게 했고 그 관심에 대답하듯 지리산의 대자연이 팔을 벌리고 사람을 조용히 안아준다. 그리고 고단한 심신을 도닥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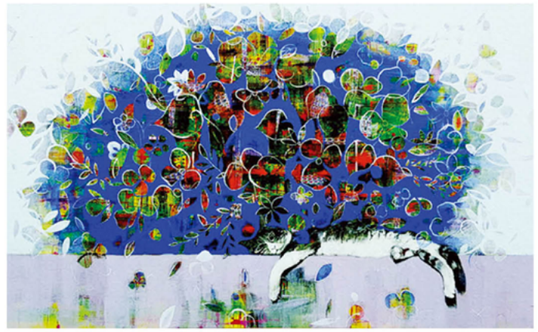
빌딩 숲에 꽃 물들이다.
thanks flower



'빌딩 숲에 꽃 물들이다' 를 주제로 물감과 한지의 콜라주(collage)를 이용해 추상과 구상이 결합된 꽃을 형상화한 꽃다발은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고, 욕심을 내려놓게 한 소중한 인연들과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작은 꽃다발을 선물하고픈 마음을 담았다.



Bumhan 범한산업 × 장선자



행운을 전하는 카라꽃 화가로 알려진 서양화가 장선자 작가의 열 번째 개인전 'thanks flower(땡쓰 플라워)'가 지난 10월 범한산업 빌딩 블루밍 스퀘어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정형화된 전시장이 아닌 현장을 찾아가는 전시 형태로, 침체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창원공단의 노동자들을 위한 전시회였다.

빌딩 숲을 물들인 꽃, 고맙다! 힘내라!
노동자에게 전하는 감사와 위로.

한지 위에 핀 꽃들이 '안녕' 해맑은 인사를 전하는 듯 화사하다. 어떤 꽃은 '고생이 많아요. 당신 노고에 감사드려요.' 고맙다 하고, 또 어떤 꽃은 '힘들죠? 잘 될 거예요.' 위로를 전하는 듯하다.

10월의 어느 날. 창원공단 범한빌딩에 꽃 그림이 피었다. 창원공단에서 일하는 누군가는 출근길, 퇴근길에 혹은 바쁜 외근길에 오가며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다.
유동인구가 많은 빌딩의 로비를 전시장으로 개방한 기업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근로자들에게 한 박자 쉬어가는 마침표를 선물하고 싶은 작가가 만나 더욱 의미가 깊은 전시회였다.

기업과 예술의 상생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생

장선자 작가는 최근 전시장을 찾을 시간과 여유가 없는 곳을 찾아가 작품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번듯한 갤러리에 그림을 걸어도 찾는 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랴. 작가는 지역에서 나눔과 메세나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범한그룹을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을 전했다.

"그동안 기업의 후원으로 예술가가 힘을 냈으니, 이번에는 예술가가 힘을 드려야죠."

범한 산업은 선박용 공기압축기로 출발해 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한 강소기업으로 지금도 내실경영과 연구개발 중심 기업으로 통한다. 현재 조선 기자재 종합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범한그룹은 극단 상상창꼬 등 공연단체를 후원하고 있고, 정영식 범한산업 대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녀의 생각이 꼭 통할 거라 확신했다.
결과는 역시 오케이. 예술과 기업이 만나 상생해야 한다는 게 범한산업 정영식 대표의 평소 지론, 큰 공단이 있는 창원은 메세나 활동이 더 활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시는 성공적이었다. 범한 빌딩 로비는 인근 창원공단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한 곳. 난데없이 마주친 화사한 꽃 선물에 바쁜 발걸음을 늦추는 사람들이 많았다.

"피어라, 피어나는 것이 네 일 인 것을… 지는 것일랑 걱정 말고…"

수많은 꽃이 스스럼 없이 피어나듯 2019년에는 나도, 우리도 활짝 피어나리라, 희망의 속삭임이 전해진 듯,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렀으리라.

2018 경남메세나협회 결연식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뜨거웠던 여름을 선선한 바람결에 실어 보내던 어느 가을날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지난 9월 13일에 열린 '2018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바로 그것이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준비한 이 행사에서는 황윤철 경남메세나협회장을 비롯해 김경수 도지사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 도내 기업인, 예술단체 대표 그리고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결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신규 결연 팀부터 11년차의 결연 팀에 이르는 153개 팀이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했다.











경남메세나는 창립 첫 해인 2007년 10개 팀 결연으로 시작해 2013년 100개 팀 결연 달성 후 6년 연속 100개 팀 이상의 결연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2018년에는 신규 결연 팀부터 11년차의 결연 팀까지 총 162개 팀이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했다. 지원금 규모도 26억 원에 달하여 기업과 예술이 만나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8년 경남메세나협회는 누적 결연 1000개 팀 누적 지원금 200억 원을 돌파,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황윤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뉴딜정책을 통해 1930년대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문화예술뉴딜정책'도 함께 펼쳐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 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확보, 더 나아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의 메세나 지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경영활동이다. 앞으로도 기업과 문화예술의 든든한 가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에 화답하듯 김경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남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경남의 문화생태계를 아름답게 가꾸겠다. 이와 맥을 같이해 이미 실천 중인 경남메세나협회 회원 기업과 예술단체가 함께 걷는 길이 평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이렇게나 많은 기업과 예술단체가 매년 결연을 맺고 있다니 놀랍고 또 경남도민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술인들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찬사도 잊지 않았다.

인사말과 축사가 끝나고 2018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의 하이라이트인 머플러 교환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우리 전통 혼례에서 청실홍실의 결합이 신랑신부의 인연을 상징하는 것처럼 결연을 맺은 기업인과 예술인들은 청색과 홍색 머플러를 서로의 목에 감아주며 메세나로 맺은 인연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2018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는 다채로운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행사 시작에 앞서 피아니스트 이주은과 첼리스트 최경은이 무대에 올라 서정적인 가을밤에 어울리는 슈만의 '헌정'과 첼로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포퍼의 '헝가리안 랩소디'를 연주해 큰 호평을 받았다. 또 축하공연으로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가 이끄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길놀이'와 '삼도농악가락'으로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마당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글 _ 메세나 / 사진 _ Bao

2018 경남메세나대회 현장 스케치

메세나로 경남을 빛낸
별들의 축제













'2018 경남메세나대회'가 11월 22일 창원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올 한해 경남의 메세나 활동을 결산하는 이날 행사에는 문화예술 지원으로 사회 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메세나상 시상식과 문화예술영재들의 공연 그리고 창원시립무용단의 축하공연까지 다채롭고 풍성하게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의 기업인과 예술인,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짚어보고 앞으로도 경남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기로 다짐했다.

경남메세나협회 황윤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14세기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 예술 분야에 후원함으로써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예술이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처럼 경남 기업인들의 메세나 활동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남 건설의 초석이 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2007년 10개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으로 시작한 경남메세나 사업이 올해는 153개 팀이 결연하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예술단체의 상생 협력을 위한 메세나 활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인과 문화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대 상

경남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이인호



통영의 옻칠을 세계로!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경남자동차창원전시장과 통영옻칠미술관에서 '기업과 예술의 만남 10년 옻칠 회화전'이 열렸다. 전시장에는 경남자동차판매(주)가 후원한 옻칠회화작가 29명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그동안 우리 고유의 옻칠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 전시회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남자동차판매(주) 이인호 대표는 400년 전통의 나전칠기 본고장 통영에 세워진 국내 유일의 옻칠 미술관이 세계를 향해 나가길 바라며 지난 2009년부터 결연을 맺고 지원해 왔다. 그 덕분에 통영 시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신비로운 빛깔을 자아내는 옻칠 작품을 즐길 수 있었고 미술관은 연간 평균 관람객이 2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음악이 흐르는 전시장, 문화가 꽃피는 경남

'기업과 예술의 만남 10년 옻칠 회화전'이 더욱 빛나도록 마음을 보태 준 또 하나의 친구가 있었다. 경남챔버쏘싸이어티였다. 경남챔버쏘싸이어티를 이끄는 차문호 교수와 이 대표는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경남메세나협회 출범 훨씬 이전부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자동차판매(주)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후원으로 경남챔버쏘싸이어티는 음악을 시민 곁으로 돌려줄 수 있었다. 또한 고객감사콘서트나 신차발표회, 매장 음악회 등 경남자동차판매 행사 때마다 품격 있는 선율로 보답했다. 자칫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자동차 전시장을 음악의 울림으로 가득 채우고, 우연히 전시장을 들른 시민들의 삶에 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창원문화재단의 '꿈의 오케스트라-창원'을 후원하고 있다. 덕분에 지역민들이 더욱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메세나인상

김태명 대표이사
㈜리베라관광개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끄는 리더!



나눔과 실천을 중시하는 김태명 대표는 지난 2009년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가입한 이래로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창원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리베라컨벤션은 평범한 은색 유리 대신 황갈색 띠를 전면 통유리에 입히고 펄을 씌워 고급스럽고 독특한 느낌을 주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건축이라는 찬사를 받는 이 건축물은 김 대표의 감각이 더해진 결과물이다. 이처럼 예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김 대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경남메세나협회와 경남오페라단, 합포문화동인회 등의 문화단체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있다.

예술단체들이 오뚝이처럼 꿋꿋하게 일어서도록

김태명 대표는 2010년부터 메세나협회 이사로 선임되면서 젊은 리더로서 협회를 잘 이끌어왔다. 2015년 동서미술상 운영위원회와 매칭펀드 결연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결연사업에 참여했다. 동서미술상은 경남의 가장 전통 있는 미술시상식으로 발전해 왔으나 한때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이때, 평소 미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김태명 대표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그동안 동서미술상에서 배출한 미술인들 모두 지역의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여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발레는 접근하기 어려운 무용이라는 편견을 깨트리고자 '창원오뚜 발레단'과 결연을 맺었다. 그는 모든 예술단체들이 힘든 순간에도 꿋꿋하게 일어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바람이 모여 이루어지는 그의 메세나 활동은 지역의 예술단체들을 위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음은 물론 우리 지역이 삶의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문화공헌상

(주)정일(대표이사 박종춘)



경남 예술 부흥을 위한 '통 큰' 지원

(주)정일 박종춘 대표는 경남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경남메세나협회 창립 때부터 회원사로서 함께 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는 전통예술 전문 예술단 '예술단 樂'과 결연을 맺고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했다.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귀한 인연 덕분에 예술단 樂은 진통음악의 작품 연구와 교육, 연주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현재 예술단 樂은 전국을 누비며 60회에 달하는 공연들을 소화하는 동시에 우수 공연물 창작을 위해 열심을 다 하고다. 힘든 시절을 보냈던 박종춘 대표는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거치면서 지쳐있을 때 어깨를 토닥여 주는 누군가의 손길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경남의 문화예술 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고 가난했던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아낌없는 지원을 마음먹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통 큰 기부는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자신에 대한 위로이자, 힘든 환경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열렬한 응원이다.

문화경영상

(주)구구(대표이사 이재철)



초심을 담은 예술 한 조각

(주)구구 정문에 들어서면 거대한 핸드프린팅 동판을 만나게 된다. 18년 전, 구구가 처음 설립될 당시 47명의 직원 모두의 손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이 작품은 직원들의 초심이 담긴 다짐이자, 한 조각의 예술품이다. 이 덕분에 구구 직원들은 매일 출근하면서 초심을 떠올리며 위기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재철 대표이사는 당시 핸드프린팅 작품을 의뢰하면서 경남 문화예술계의 열악한 창작 환경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는 경남전업미술가협회와 결연을 맺고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어느덧 6년째 이어지고 있는 후원으로 그동안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활동이 힘들었던 경남전업미술가협회는 다양한 전시회와 해외 교류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그 결과, 경남 미술 수준도 동반성장하고 있다. (주)구구의 경영이념은 '즐거운 회사'다. 혼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운 회사, 단순히 즐거운 회사가 아니라 문화예술로 즐거운 회사, 메세나 활동을 통해 (주)구구는 경영이념을 의미 있게 실천하고 있다.

Arts&Business상

PS엔터테인먼트(대표 최민선) **& 극단 이루마**(대표 이정유)



연극을 사랑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인연

PS엔터테인먼트와 극단 이루마의 관계에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시절 연극과 사랑에 빠진 두 소년은 성인이 되어 극단 이루마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걷고 있다. 극단을 만들었지만 동행은 쉽지 않았다. 최민선 대표는 집안의 반대로 극단 생활만을 고집할 수 없었다. 최 대표는 연극계를 떠난 후에도 극단 이루마를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2010년부터는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결연을 맺으면서 극단 이루마가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기획력과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음은 물론이고 개천예술제 단체대상(문화관광부 장관상) 및 최우수 연기상, 경남연극제 단체 금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 경남을 대표하는 극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은 연극을 사랑하고 무대를 향한 열정으로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열정 가득한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문화예술영재상

태예원(부산예고 2학년), **김유진**(거제수월초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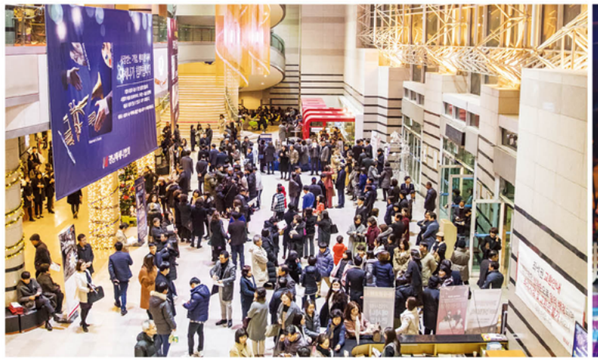


2018 경남메세나대회 문화예술영재 부문에 선정된 두 학생은 각각 H. Wieniawski의 〈화려한 폴로네이즈〉와 I. Berkovich의 〈파가니니 주제에 따른 변주곡 가단조〉를 연주하여 참석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바이올린을 연주한 태예원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관심과 높은 이해도 그리고 열의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 풍부한 감성으로 수준 높은 기교를 요구하는 연주곡을 훌륭하게 소화했다. 앳된 모습으로 피아노 앞에 앉은 김유진 학생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연주로 관중들을 사로잡았다. 두 학생에게는 BNK경남은행의 후원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개최

기업과 예술이 함께 만든 송년의 추억,

경남메세나협회(회장 황윤철, BNK경남은행 은행장)가 주최하고 BNK경남은행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가 12월 18일(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메세나 활동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내 고장 기업사랑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탈춤단체인 고성오광대와 경남메세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GMPO)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바리톤 김동규, 뉴욕타임즈가 다채롭고 유연한, 너무나 달콤한 목소리라고 극찬한 바 있는 소프라노 강혜정, 한국 뮤지컬계의 여왕 최정원 그리고 깊은 감성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사랑받는 OST 퀸 가수 린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겨울밤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이 공연은 미리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풍성했다. 첫 무대는 고성오광대보존회(국가무형문화재 제7호)가 열었다. 앞서 경남메세나협회는 고성오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을 위촉하였다. 배김사위 가락을 재해석한 리듬으로 전개된 무조음악(atonal music)인 고성오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광대 나가신다'에 맞추어 고성오광대는 멋스러운 춤사위를 선보였다.

이 곡을 작곡한 김지만 작곡가는 "서양 오케스트라와 국악기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조화 그리고 탈춤과 재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 무대에 녹이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며 작업을 진행했다"라며 후일담을 전했다. 고성오광대 출연진 역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만남이 만들어낸 하모니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이어 바리톤 김동규와 소프라노 강혜정이 무대에 올라 서정적이고 따뜻한 노래를 선물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은 뮤지컬 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자신이 주역으로 출연한 작품의 넘버들을 선보이며 열정의 무대로 열기를 끌어올렸다. 발라드와 OST의 여왕 가수 린은 'My Destiny',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시간을 거슬러' 등 린 특유의 깊은 감성이 묻어나는 곡들을 열창하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피날레는 경남메세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GMPO)가 장식했다. GMPO는 경남 도민과 문화적 감동을 공유하고 기업의 지역 문화사랑 실천을 통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남을 만들고자 지난 2014년 창단되었다. 이날 공연에서 GMPO는 장엄한 관의 합창과 팀파니의 울림이 돋보이는 M. P. Mussorgsky의 「전람회의 그림」 중 '키에프의 대문'을 연주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관객들과 함께 특별한 송년의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공연은 경남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BNK경남은행과 함께 개최하였다.

글 _ 허용호 교수 / 사진 _ Bao

낯선 낯익음
‘광대 나가신다’에 거는 기대

허용호 _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창원에서 받은 풍성한 선물 꾸러미,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지난 12월 18일 화요일 저녁, 필자는 경남메세나협회가 주관하고 BNK경남은행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의 관객으로 성산아트홀 대극장에 있었다. 마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던 터라 이 콘서트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으로 내게 다가왔다. 콘서트는 풍성하고 다양했다.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강혜정, 뮤지컬 배우 최정원, 가수 린은 각자 그들의 명성에 걸맞은 무대를 연출했다. 여기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까지 어우러졌다. 능청스러움으로 관객을 파고드는 김동규의 친근감, 강혜정의 우아함, 최정원의 활력과 열정, 진정성이 담긴 린의 매혹적인 음색이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냈다.

이번 콘서트에서 그 어떤 출연자보다도 애를 쓴 것은 경남메세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였다. 오케스트라는 출연진들의 무대가 저마다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는 모습으로 안정감 있게 무대 뒤를 지켜주는 한편, M. P. 무소로그스키(Mussorgsky)의 「전람회의 그림」 중 ‘키에프의 대문’을 연주할 때에는 묵직하고 장엄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진가를 보여주었다.

예기치 않은 선물, ‘광대 나가신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콘서트는 ‘미리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선물은 알찼고 풍성했다. 그런데 그 선물 꾸러미 속에는 필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 예기치 않았던 선물, 그것은 ‘광대 나가신다’라는 작품이다. 사실 필자가 창원까지 먼 길을 달려온 이유도 오케스트라 중심의 송년 콘서트에 생뚱맞게도 고성오광대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궁금함, 우려, 기대 등이 어우러진 복잡한 상념을 품은 채, 그 실제를 확인하고 싶었다.

사실 필자의 뇌리에는 콘서트에 찬조 출연하는 고성오광대의 어정쩡한 설정의 우려가 짙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 팸플릿을 받아 든 순간 그 우려는 사라졌다. 고성오광대의 무대는 프로그램의 첫 순서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다. 더구나 경남메세나협회가 작곡가 김지만에게 고성오광대와 오케스트라가 협연할 수 있는 곡을 직접 의뢰하였고, 오늘의 공연이 그 초연 무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습과 평론의 자세로 돌아가 눈과 귀를 열고 어떻게 이 곡이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연주될까 궁금해졌다. 한 번도 같이 생각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의 호흡과 서구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만나 어떤 정서를 녹여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조화를 일으켜 우리 예술의 새로운 실마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기대가 되었다.


작곡가 김지만

꽹과리의 자진모리장단(자진덧배기장단)이 들리고 고성오광대가 무대에 등장했다. 귀에 익은듯하면서도 생소한듯한 소리가 울렸다. 기존의 탈춤 반주를 풍요롭게 보완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각각의 악기가 자기 소리만 내는 것 같았다. 체계도 틀도 없는 것 같은 소리는 마치 연주가 시작되기 전 조율을 하고 있는듯한 느낌이었다. 갸우뚱하며 다시 집중하였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우리의 ‘난장 분위기’였다. 오케스트라와 광대들이 한바탕 축제판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쉬이~” 광대의 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광대의 춤을 지휘했다. 춤도 연주도 모두 멈추었다. 이어 말뚝이의 재담이 이어졌다. “동정은 광활하고 천봉만악은 그림을 그려있고 수상부용은 지당에 범범한데 양유 천만사 화류춘광 자랑하니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어데서 말뚝이를 부르는지 나는 몰라요~” 말뚝이는 하인이지만 그의 춤과 재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장단이 다시 이어졌다.

앞선 장단과 달리 고성오광대 특유의 굿거리장단(느린덧배기장단)으로 바뀌었다. 오케스트라 역시 일정한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고성오광대 덧배기춤의 장단을 따라가며 역동성과 웅장함을 더했다. 그 결과 단출했던 덧배기춤 장단이 풍성해졌다. 낯익은데 낯선 음악이 고성오광대의 춤과 어우러졌다.





‘광대 나가신다’는 연주만 하는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담이 있고, 춤이 있는 공연이기도 했다. 말뚝이의 당당하고도 능수능란한 재담과 양반의 허세로 가득 찬 재담이 연주 사이사이에 배치되었다. 고성오광대 덧배기장단을 기본으로 하면서 오케스트라가 풍성함을 더했다. 전혀 다른 느낌의 공연이었다. 광대들이 있고, 악사들이 있으며, 오케스트라도 있고 지휘자까지 있다.

이들이 한 무대에서 공존한다.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공존의 상황의 벌어졌다.

이렇게 낯선 무대 상황 가운데 낯익은 것도 있었다. 그것은 장단이었다. 여덟 명의 광대들이 어렵지 않게 신명 나는 덧배기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기본 장단이 여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낯선 것이기도 했다. 낯익은 덧배기장단이지만 오케스트라 연주가 덧입혀지면서 낯선 반주가 탄생했다. 낯익어서 광대들은 어색하지 않게 춤을 출 수 있었고, 덧입혀져 난장판에서 웅장함마저 느껴졌다. 특히 자진모리와 굿거리를 단순한 빠르기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었다.

자진모리장단이 기본이 된 초반 대목과 마무리 대목이 함께 어우러지는 난장판을 떠올리게 했다면, 굿거리장단이 기본이 된 중반부는 일정한 형식적 틀을 갖춘 정돈된 구경거리로 인식되었다.

‘광대 나가신다’에 거는 기대

‘광대 나가신다’는 경상남도 고성에서 전승되는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낯섦과 낯익음, 조화와 부조화였다. 여기에 덧붙여 필자는 재담과 춤의 공존이라는 또 다른 양상에도 주목한다.

‘광대 나가신다’는 단순한 연주곡이 아니라, 재담을 하고 춤이 어우러져 완성되는 곡이다. 즉, ‘광대 나가신다’는 듣는 음악인 동시에 보는 공연이다. 적어도 필자는 이번 콘서트에서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재담을 하는 새로운 모습의 고성오광대를 보았다.

공연을 보면서 필자는 ‘광대 나가신다’라는 곡명이 ‘물럿거라’와 같은 가갈(呵喝)의 호령으로 느껴졌다. 이제 광대들이 행차할 것이니 모두 물러나 지켜보라는 선언으로 들린 것이다. 그런데 그 선언이 선언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선언에 걸맞게 광대들의 폼 나는 한 판을 기대한다. 어정쩡한 무대에서 부자유스러운 춤판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에서의 공연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흥미가 감탄으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 그때는 탈춤 반주 악사들이 어정쩡하게 자리한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함께 당당하게 자리했으면 한다. 탈춤 광대들은 항상 당당했었다. 그들은 눈치를 보지 않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광대들, 그들이 중심이 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광대 나가신다’ 공연을 기대해 본다. 어쩌면 이것이 이번 ‘광대 나가신다’의 참신함과 흥미로움에 조응하는 것이며, 선언에 어울리는 실천이다.





글 _ 정인정 / 사진 _ 효자동사진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전한 남북합동공연

2018년 4월 2일~3일, 한반도에는 감동의 하모니가 울려퍼졌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부제 : 봄이 온다)’과 남북합동공연 ‘우리는 하나’가 평양에서 열렸다. 남측 가수가 평양무대에 오른 건 13년만이다. 대한민국 통일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기념비적인 공연이었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모든 교류의 출발은 바로 문화예술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로도 다변적인 남북이해관계가 펼쳐졌으며 국내외적인 상황들은 하루가 다르게 돌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양에서의 남북합동 공연 이후 문화 도시로서의 평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통일의 물꼬 트기에 힘이 실리는 형세다.

문화도시 평양 북한 문화예술 공연의 집합소

북한의 문화예술은 평양을 중심으로 발전돼 있다. 수도인 평양은 북한의 상징이며 거의 대부분의 문화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카메라에 잡힌 평양의 거리는 전세계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우리가 가진 막연한 편견과는 달리, 평양 시민들의 표정과 발걸음엔 활기찬 기운이 흘렀고, 초가을 파란 하늘 아래 대동강을 품에 안은 평양은 밝고 환했다. 예전엔 회색빛 도시라는 인상이 강했는데 이젠 도시 색채가 화려해진 느낌이 강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 이런 평양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술은 어떨까, 궁금해진다.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북한 예술 공연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선보였다. 아이들에서 성인까지 수천만 명이 함께 펼치는 카드 섹션과 군무가 인상적이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이 복합된 공연이었다.

이처럼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학 단체인 〈조선문학예술 총동맹〉 각 부문별 중앙예술단체로는 1947년 평양모란봉예술단에서 출발한 국립민족예술단, 음악인들과 연극배우, 무용단과 관현악단으로 구성된 〈만수대 예술단〉, 지금까지 100여 편의 장막극과 270여 편의 중단막극을 공연한 〈국립연극단〉, 평양대극장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피바다 가극단〉, 단원 3백여명의 대규모 연주단체인 〈조선인민군 협주단〉, 관현악을 중심으로 하는 악단인 〈국립교향악단〉 그리고 평양교예극장을 주 무대로 하면서 지방으로 소규모 이동식 천막극장 무대를 통한 순회공연을 하는 〈평양교예단〉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북한 예술계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이다. 삼지연관현악단은 2018년 1월 평창 동계 올림픽 북측 예술단으로 새롭게 선보였는데, 기존 삼지연악단의 연주진을 중심으로 청봉악단의 가수들과 일부 연주자들 그리고 다른 악단의 연주자들을 조합한 일종의 연합 악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삼지연관현악단은 일시적인 프로젝트 연합 악단 위상에서 벗어나 기존 삼지연악단을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음악단체로 창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삼지연관현악단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삼지연악단은 2009년 1월 창단되었으며 보통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으로 불렸다. 2009년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며 웃기도 하며 눈물 또한 흘릴 수 있는,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을 만들라는 지침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일종의 팝스 오케스트라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수묵으로 번지듯 그리는 몰골법... 북한 조선화 특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도 미술은 꽃핀다. 북한은 미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평양미술대학과 북한의 우수한 작품이 전시된 조선미술박물관, 명절에 개최되는 국가미술전람회 등 미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평양에 위치한 만수대창작사는 최고의 북한 미술 창작 단체로, 조선미술가동맹의 뛰어난 예술가들의 집합체로 불린다.



한국의 동양화를 북한에서는 조선화라 부른다. 조선화는 북한 미술의 핵심으로, 미술대학의 모든 학생이 학습해야 한다. 특히 윤곽선 없이 수묵으로 번지듯 그리는 작법인 몰골법은 북송대 이후 성행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저총씨름도’를 비롯해 고구려 고분벽화의 수지법에서 몰골법을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 후기 김홍도의 화법에서도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북한에서는 조선화의 민족적 특성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미술 전 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를 주제로 북한 미술작품을 선보였고, 올해 서울의 전당에서는 ‘남북



평화미술제’를 진행, 북한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작품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예술 교류를 통한 남북 화합이 중요한 이유, 아니겠는가.

북한민의 일상을 소개한 북한 영화 국내 영화제에서 소개

남북관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모습이 담긴 영화가 2018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공개돼 화제였다. 분단이후 북한영화가 국내에 상영된 건 처음이었다.

바로 북한 영화 〈우리 집 이야기〉이다. 영화제 측은 남북 교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북한영화 공개상영을 급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천영화제 북한 영화 특별상영전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제작된 장편영화 3편과 단편 6편이 공개됐는데, 관객들은 대부분 ‘신기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영화를 통해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고, 미술을 통해 서로의 실력을 존중하며 노래 한 곡에 서로 공감할 수 있다면 남북이 함께 노래할 날들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문화교류를 통한 한반도의 봄바람이 계속되길 기대해본다.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 한 장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시인 허수경
당신을 부릅니다.



작은 몸으로 거침없이
세상과 사람, 고향에 대한
사랑을 쏟아낸 故 허수경 시인.
그녀를 잃은 슬픔도 또한
거름이 되는 걸까.
그녀의 첫 번째 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속
'탈상' 이란 시를
가만가만 읊조려본다.

탈 상

허수경

내일은 탈상
오늘은 고추모를 옮긴다

홀아비 꽃대 우거진 산기슭에서
바람이 내려와
어린모를 흔들 때

막 옮기기 끝낸 고추밭에
편편이 몸을 누인 슬픔이
아랫도리 서로 묶으며
고추모 사이로 쓰러진다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남녘땅 고추밭
햇빛에 몸을 말릴 적
떠난 사람 자리가 썩는다
붉은 고추가 익는다

196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경상대 국문과를 졸업한 허수경 시인은 1987년 〈실천문학〉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등단 이듬해 낸 첫 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는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한다.

그 사내 내가 스물 갓 넘어 만났던 사내
몰골만 겨우 사람 꼴 갖춰 밤 어두운 길에서 만났더라면
지레 도망질이라도 쳤을 터이지만
눈매만은 미친 듯 타오르는 유월 숲속 같아
내라도 턱하니 피기침 늑막에 차오르는 물 거두워주고 싶었네
_ 폐병쟁이 내 사내 中

누가 이 시를 두고 20대 처녀가 쓴 글이라 짐작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시집 표지에 실린 앳된 여고생 같은 얼굴로 말이다. 그녀의 시는 나이답지 않게 농염하고 청승맞았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서정에 실천적인 역사의식을 덧입혔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시인 이덕규는 허수경의 시를 이렇게 평가했다.

"시절이 수상하여 남정네들 뿔뿔이 흩어져 험한 세상 떠돌 때, 어린 것들과 부모와 고향 선영을 지킨 것은 여자였다.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떠돌다 몸 망가져 간신히 눈빛만 살아서 돌아온 사내를 살려낸 것도 여자였다. 당당하고 합리적인 페미니스트도 좋지만 겨우 스물 갓 넘었을 때, 이미 세상을 다 끌어안고도 남을 만큼 커버린 저 어린 시인의 代母적 넓은 품이 나는 더 좋다."

1992년에 낸 두 번째 시집 〈혼자 가는 먼 집〉 역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녀만의 살아있는 듯한 언어와 필력이 빛을 발했다. 그리고 또 한발 나아간 그녀.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_ 혼자 가는 먼 집 中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는 유행가 가사가 있다. 당신을 부르는 시인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을 호명하는 것이 또 한 번의 상처인 것을. 그런데도 부른다. 킥킥, 가엾이 여기며 부른다. 두 번째 시집에서 그녀의 시 언어는 또 한 번 성큼 나아갔다. 웃음으로 울음을 대신하는 의성어 '킥킥' 은 한국 시사(詩史)에 인상적으로 등재되었다.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혼자서 가는 먼 집〉 이 두 권의 시집으로 허수경 시인은 일약 한국 시의 중심으로 진입한다.
그런 그녀가 두 번째 시집을 낸 직후 돌연 독일로 갔다. 지인들은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 여겼다. 유난히 한국어의 어감과 가락에 예민했던 그녀였기에. 그런데 허수경 시인은 15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현지인과 결혼해서 그곳에 눌러앉았다. 발굴 작업을 위해 일 년의 절반 정도를 모래 서걱대는 터키나 이집트의 변방에 가 있고, 새벽이면 모국어로 시를 썼다고 한다. 지인들이 전한 소식으로는, 집 뒤란에 텃밭을 만들고 한국에서 공수한 씨를 뿌려 상추며 쑥갓 등을 직접 길러 먹었다고도 했다. 음식 솜씨 좋기로 유명했다는 그녀가 이국에서 김치를 담그고 각종 국을 끓이면서 그녀는 그렇게 견뎠던 걸까... 문득 그녀가 진주 남강 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여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동화, 소설, 산문을 꾸준히 써오던 그녀는, 2001년 세 번째 시집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를 내놓으며 또 한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오랜 외국생활과 그리고 자신이 전공한 고고학이 절묘하게 결합된 시세계를 선보였다는 평가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극심해진 전쟁, 테러, 그에 따른 이산과 난민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시집들이 여럿 발간되었다.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2005),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2011),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2016)를 거치며 한국 시가 국제적 감각과 맥락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아이들 자라는 시간 청동으로 된 시간
차가운 시간 속 뜨겁게 자라는 군인들
아이들이 앉아 있는 땅속에서
감자는 아직 감자의 시간을 사네
_물 좀 가져다주어요 中

사춘기 시절 뚱뚱하고 우울한 소녀였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 허수경 시인. 진주는 그녀가 내어난 고향이자 시인의 문학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다. 시인의 유년시절에 대한 기억이 담긴 진주 남강의 풍경들.

"탯줄은 강에 띄워 보내고 / 간간이 강풍에 진저리치며 / 나는 자랐다"
노모와 함께 시장 한가운데 들러 먹었던 '꽃밥' 시인의 표현대로 '지겹도록 정이 든 고향' 을 두고 이국땅에서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이제는 독일보다 더 먼 곳으로 떠나버린 허수경 시인. 그녀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녀와의 추억을 나누며 애도했다고 한다. 진주의 한 서점에서는 그녀의 책들만을 모아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고...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경남은행
경남오페라단
농협경남본부
㈜무학
㈜센트랄
우수AMS㈜
㈜인산가
임경숙
㈜한국야나세
㈜회인테크놀리지
청호산업(유)
경남도문화관광체육국
경원벤텍㈜
고성오광대보존회
창원대학교 음악과
(주)리베라관광개발
범한산업㈜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
원광건설㈜
㈜지엔티
고승하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현대단조
화성G&(주)
the큰병원
가야TBS㈜
㈜강민종합건설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거제켄벤션웨딩뷔페
경남개발공사
경남스틸㈜
(주)경남신문사
경남자동차판매㈜
경원여객자동차㈜
㈜경한코리아
㈜고구려
고려이노테크
㈜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치과병원
광득종합건설㈜
광신기계공업㈜
㈜구구
㈜국제전기
㈜국토보상원
그린산업㈜
그림갤러리㈜
(합자)금강전기공업사
금강중기
금성이노텍㈜
㈜금솔개발
㈜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영
낙우산업㈜
남명산업개발㈜
남양매직㈜
(주)네오씨티알
늘푸른 요양병원
대경건설㈜
㈜대길티에프
㈜대동주택
대방스페셜스틸㈜
대선주조㈜
대신금속㈜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한전선전기㈜
㈜대호엠엠아이
㈜대호테크
㈜덕광중공업
㈜동구기업
동양특수금속㈜
㈜동오프랜지
㈜동은화학
두남화학
디씨엠㈜
디케이락㈜
라온산업개발㈜
마산정안과
㈜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
무림페이퍼㈜
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베스트엔드베스트
(주)보덕건설
(재)봉림장학회
㈜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
부성자동차학원
㈜부평디엔피
㈜북성산업
㈜사릭
사보이호텔
㈜산호수출포장
㈜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
삼원동관㈜
삼원테크㈜
㈜삼전건설
삼정기업
㈜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유)상화도장개발
㈜서영시스템
서병원
선린자모의원
성부가스산업㈜
(주)성우
(주)성환금속
(주)세복
세이창원특수강
㈜세양정공
㈜세호테크
승진기계㈜
시영건설㈜
신광에이스전기㈜
신요푸드시스템㈜
신창기계
㈜신한물산
㈜쎄노텍
아진기계
㈜애드테크
㈜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에이스코트
영광산업㈜
㈜영남엘피씨
영민테크
㈜영신화공
㈜영일정공
㈜영진테크
㈜영창기업
예인여성병원
㈜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오엔이
㈜옥산아이엠티
원광산업석재
원한의원
㈜웰템
유림건설㈜
㈜유림철강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념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레개발㈜
㈜이앤티
㈜이우
이피씨
인산죽염㈜
인화정공㈜
㈜장생도라지
㈜장성E.P.S
㈜장한
정남종합건설㈜
㈜정문애드테크
(주)정일
주용테크
중앙건설㈜
㈜중앙금속
중원종합건설㈜
㈜지에스비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자동차학원
청아의료재단
초심공업㈜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익수의원
츄고쿠삼화페인트㈜
캠코 경남지역본부
㈜케이씨
㈜코앞건설
㈜코텍
쿠쿠홈시스㈜
태광실업㈜
㈜태완정공
㈜태현메가텍
㈜포스텍
풀만호텔
피케이밸브㈜
하이에어코리아㈜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한국소니전자㈜
한국정기공업㈜
한국제강㈜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
한국항공우주산업㈜
㈜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
해수종합건설㈜
현대공영㈜
㈜현대기업
㈜혜동
㈜호텔인터내셔널
흥기종합건설㈜
㈜화영
㈜화영
화영철강㈜
화이트치과
㈜화인에이티씨
화일종합건설㈜
㈜환웅정공
흥일기업㈜
PS엔터테인먼트
STX조선해양㈜
STX엔진㈜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 사업소개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에서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 |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상생하며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예술단체 워크숍 | 도내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들의 기획 및 단체운영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를 기획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공감/문화경영도서 |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정기탁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 |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 | 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협회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과 경남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 | 회원사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 | 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 문화발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 |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 경남메세나협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 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들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2018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 | 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들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2019 창원문화재단 상반기 기획공연

2月

남경주의 오! 뮤지컬 넘버 #1 콘서트
일시 2. 12(화) 오전 11시
장소 성산아트홀(소)



대세록밴드 '로맨틱펀치'
일시 2. 27(수) 오후 7시 30분
장소 3.15아트센터(소)



3月

임태경 & JK김동욱 '두남자의 Love Letter'
일시 3. 9(토) 오후 5시
장소 3·15아트센터(대)



박종성의 하모니카로 전하는 이야기
일시 3. 12(화) 오전 11시
장소 성산아트홀(소)

보컬특집 아카펠라 '메이트리'
일시 3. 27(수) 오후 7시 30분
장소 3·15아트센터(소)

4月

윱반라인 재즈의꽃 트럼펫
일시 4. 9(화) 오전 11시
장소 성산아트홀(소)

싱어송라이터특집 포크의 거장 '장필순' 김사월x김해원
일시 4. 24(수) 오후 7시 30분
장소 3·15아트센터(소)

조수미 콘서트
일시 4. 30(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성산아트홀(대)



5月

전수경의 뮤지컬 갈라콘서트
일시 5. 14(화) 오전 11시
장소 성산아트홀(소)

월드뮤직 '하림과 블루카멜앙상블'
일시 5. 29(수) 오후 7시 30분
장소 3·15아트센터(소)

가정의 달 특집 뮤지컬'셰프'
일시 5. 10(금) – 5. 11(토) 오후 7시 30분
장소 진해야외공연장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일시 5. 31(금) 오후 7시 30분
6. 1(토) 오후 2시, 7시
6. 2(일) 오후 2시
장소 성산아트홀(대)

6月

진보라의 여름날의 보랏빛 재즈
일시 6. 11(화) 오전 11시
장소 성산아트홀(소)

연극 '신인류의 백분토론'
일시 6. 22(토) 오후 2시, 7시
장소 3·15아트센터(소)

김준수x신현필 '美친美인 크로스오버 콘서트'
일시 6. 26(수) 오후 7시 30분
장소 3·15아트센터(소)

코미디 연극 '톡톡'
일시 6. 29(토) 오후 2시, 7시
장소 3·15아트센터(소)

상기 프로그램은 주관처의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055-719-7800~2**

창원문화재단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은 '라온하제'를 추구합니다.
* 라온하제는 '즐거운 내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2019 상반기 Great Season



패키지티켓오픈 I 2. 13.(수) 10:00
개별티켓오픈 I 2. 20.(수) 10:00
문의 I 1544-6711, artcenter.gyeongnam.go.kr

패키지 티켓 최대 40% 할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2019 상반기 Great Season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청렴한 당신이 문화예술을 아름답게 합니다.

SEASON ON STAGE

2019 김해문화의전당
상반기 시즌
2월 1일
티켓오픈



CLASSIC x 클래식
러시아 국립 볼쇼이 합창단
바시오나 아모로사

DANCE x 무용
모스크바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번더플로어

POPULAR MUSIC x 대중공연
장사익 소리판 〈자화상 七〉
웅산 〈Windy Spring Jazz〉 콘서트

PLAY x 연극
진실 X 거짓
수상한 집주인

SERIES x 시리즈

어린이
목 짧은 기린 지피
어린이캣's 3탄
환타지 오즈의 마법사

아침의 음악회
바이올린 – 김소진
팬플룻 – 김창균
첼로 – 심준호
비올라 – 이신규

콘서트누리
맥거핀
서사무엘
소란

문의 및 전화예매 : 김해문화의전당 055-320-1223-5
홈페이지 예매 : 김해문화의전당 http://gasc.or.kr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2019 통영국제음악제

TONGYEONG INTL. MUSIC FESTIVAL

TIMF

운명 Destiny

2019.3.29—4.7

개막공연 OPENING CONCERT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I
Lucerne Symphony Orchestra I
3. 29. FRI 7:30 PM | CONCERT HALL
베조드 압두라이모프,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하엘 잔덜링

도시오 호소카와: 오페라 '바다에서 온 여인'
Toshio Hosokawa: Opera "The Maiden from the Sea"
3. 29. FRI 10:00 PM | BLACK BOX
3. 30. SAT 5:00 PM
3. 31. SUN 5:00 PM
사라 베게너, 료코 아오키, TIMF앙상블, 김유빈
성시연, 토마스 이스라엘

자그레브 솔로이스츠 I
Zagreb Soloists I
3. 30. SAT 3:00 PM | CONCERT HALL
벤젤 푹스, 자그레브 솔로이스츠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II
Lucerne Symphony Orchestra II
3. 30. SAT 7:30 PM | CONCERT HALL
서예리, 로만 트레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안산시립합창단, 미하엘 잔덜링

파베르제 퀸텟 & 베조드 압두라이모프
Fabergé Quintet & Behzod Abduraimov
3. 30. SAT 9:30 PM | CONCERT HALL
파베르제 퀸텟, 베조드 압두라이모프

마티네 콘서트 : 루체른 심포니 솔로이스츠
Matinée Concert: Lucerne Symphony Soloists
3. 31. SUN 11:00 AM | CONCERT HALL
안드레아 비쇼프, 루체른 심포니 솔로이스츠

자그레브 솔로이스츠 II
Zagreb Soloists II
3. 31. SUN 3:00 PM | CONCERT HALL
에딕손 루이스, 임희영, 자그레브 솔로이스츠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 & 루세로 테나
Xavier de Maistre & Lucero Tena
3. 31. SUN 7:30 PM | CONCERT HALL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 루세로 테나

베조드 압두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
Behzod Abduraimov Piano Recital
4. 1. MON 7:30 PM | CONCERT HALL
베조드 압두라이모프

나이트 스튜디오 I: 바흐와 룸바
Night Studio I: Bach & Rumba
4. 1. MON 9:30 PM | CONCERT HALL
베로니카 에베를레, 에딕손 루이스 외

별이 빛나는 밤에
Nuit des Etoiles
4. 2. TUE 7:30 PM | CONCERT HALL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 송지원, 고봉인

나이트 스튜디오 II: 바람의 외침
Night Studio II: Der Ruf des Windes
4. 2. TUE 9:30 PM | BLACK BOX
하비에르 하겐, 유홍, 타마르 에스케니안

아르디티 콰르텟 I
Arditti Quartet I
4. 3. WED 7:30 PM | CONCERT HALL
아르디티 콰르텟

나이트 스튜디오 III: 임희영 첼로 리사이틀
Night Studio III: Hee-Young Lim Cello Recital
4. 3. WED 9:30 PM | CONCERT HALL
임희영, 홀거 그로쇼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Korean Symphony Orchestra
4. 4. THU 7:30 PM | CONCERT HALL
미샤 마이스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치용

나이트 스튜디오 IV: 서예리 & 홀거 그로쇼프
Night Studio IV: Yeree Suh & Holger Groschopp
4. 4. THU 9:30 PM | CONCERT HALL
서예리, 홀거 그로쇼프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I
Tongyeong Festival Orchestra I
4. 5. FRI 7:30 PM | CONCERT HALL
베로니카 에베를레,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알렉산더 리브라이하

아르디티 콰르텟 & 김유빈
Arditti Quartet & Yubeen Kim
4. 5. FRI 9:30 PM | CONCERT HALL
아르디티 콰르텟, 김유빈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Mischa Maisky Cello Recital
4. 6. SAT 2:00 PM | CONCERT HALL
미샤 마이스키, 릴리 마이스키

아시아 작곡가 쇼케이스
Asian Composers Showcase
4. 6. SAT 5:00 PM | BLACK BOX
홍콩 뉴 뮤직 앙상블, 리오 쿼크먼

로스 로메로스
Los Romeros
4. 6. SAT 9:00 PM | CONCERT HALL
로메로 기타 콰르텟

홍콩 뉴 뮤직 앙상블
Hong Kong New Music Ensemble
4. 7. SUN 11:00 AM | BLACK BOX
서예리, 허윤정, 홍콩 뉴 뮤직 앙상블, 리오 쿼크먼

폐막공연 Finale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II
Tongyeong Festival Orchestra II
4. 7. SUN 3:00 PM | CONCERT HALL
서선영, 김석철, 전승현,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알렉산더 리브라이하

www.timf.org | ticket.interpark.com

HYUNDAI
MOTOR GROUP

www.hyundai-rotem.co.kr



세상을 움직이는
GREAT MOVE

세상을 이어주는 **철도사업으로**
평화를 지키는 **방위사업으로**
경제를 키우는 **플랜트사업으로**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것
현대로템이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HYUNDAI Rotem

제21회 벤처창업진흥유공 포상 시상식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훈!
화인식구 여러분의 성과이며,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산업용특수테이프
분야를 선도하는
화인테크놀리지



반도체용 점착 TAPE
DICING TAPE
BACK GRINDING TAPE
HEAT SEAL TAPE
EMC MOLD CUTTING TAPE

FPC MATERIL
COVERLAY TAPE
STIFFENR TAPE(보강판)
CARRIER TAPE
CARRIER TAPE

산업용보호 TAPE
건축자재용 보호 TAPE
건축자재용 보호 TAPE
자동차 부품용 보호 TAPE
자동차 부품용 보호 TAPE

세라믹가공·발포용 TAPE

라벨스티커



(주)화인테크놀리지
www.finetechnology.co.kr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1길 10
TEL : 055)362-8110 FAX : 055)362-8113

LCT HOTEL

Best Business Hotel in Gyeong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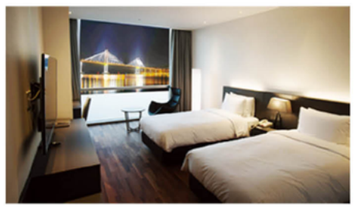


바다를 품에안은 '엘시티호텔'

비교할수 없는 경남 최고의 대표 비지니스 호텔. 이제 마산은 엘시티호텔로 기억됩니다.



PREMIER DELUXE



PACIFIC DELUXE



EXECUTIVE SUITE

문의) 055.248.2700

(주)리베라관광개발 (주)리베라 MAIN TOWER (주)리베라컨벤션 (주)엘시티관광호텔

49TH ANNIVERSARY 1970-2019

1초도 쉬지 않는 4,900만개의 은행

BNK 경남은행 투유 | 뱅크

4,900만 스마트폰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경남은행 투유뱅크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24시간 365일 간편한 이체·계좌조회
- 24시간 365일 간편한 예·적금 가입
- 24시간 365일 무방문·무서류 대출
- 24시간 365일 외화 환전

※ 2018년 4월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 수 49,614,540명(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BNK 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스마트폰 안에 쏙! **투유뱅크**

BNK 경남은행 환전을 포함한 생활편의서비스가 쏙! **투유금융**

BNK 경남은행 입출금 내역 다양한 혜택정보가 쏙! **투유알림**

※ 본 내용은 BNK경남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홍보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홈페이지(http://www.knbank.co.kr) 또는 BNK경남은행 고객센터(1600-8585), 영업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번호 : 2018-G-690 심의일자 : 2018. 7. 13 유효기간 : 2020. 06. 30

BNK 경남은행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기업이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